

2025년 8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o 일시 및 참석인원

일 시	참 석 인 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50~04:20 (재방송 매주 월 00:30~01:00)	해당사항 없음

o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 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 고
안지연	8/3	[뉴스리뷰] 취약 계층에 더 혹독한 폭염...방문 지원 함께해보니 [뉴스포커스] 폭염 속 예초 '땀 뻘뻘'...야외근로자 온열질환 주의	
안지연	8/10	[뉴스오늘] 계약 나흘 뒤 취소했는데...예약장 "계약금 못 돌려줘" [뉴스오늘] 스톡·교제폭력 비극 반복...대책 쏟아지나 실효성은 '글쎄'	
김홍태	8/17	[뉴스오늘] 케데헌 열풍' 어디까지...굿즈 동나고 서울 명소도 인기 [뉴스위치] '케데헌' 아이돌 변신 농식품부 대변인..."정책 홍보도 재밌게"	
임윤주	8/24	[뉴스리뷰] 경제계 "노란봉투법 통과 시 산업생태계 붕괴...강력 규탄" [뉴스리뷰] 노동계·청년단체 "청년 일터 지키는 노란봉투법 통과 촉구"	
최미연	8/31	[뉴스센터] "피츠메이커"."당신은 전사"...선물·칭찬 주고받은 한미 정상 [뉴스센터] 이 대통령 "한미 비핵화 협력...NPT 의무 철저히 준수"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없음'

구 분	성 명	전 · 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 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대한변호사협회 권익위원	2018. 06. 28	-
활동	임윤주	이화여대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연구원	2021. 11. 28	-
활동	안지연	동명대학교 광고 홍보학과 초빙교수	2023. 01. 31	-
활동	최미연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	2024. 07. 25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붙임1]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5 8/3(일)	안지연	지난달 27일 일요와이드에서는 해외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소방청 응급의료 상담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로 추가하면 몇 번의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얼마 전 멕시코로 향해하던 선박에서 손목 골절상을 입은 선원이 이 서비스를 통해 신속히 초기 치료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례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보도는 해외 시차를 고려해 24시간 전문 요원이 상주해 필요한 응급처치를 안내하고 있다는 소방청 관계자의 설명과 함께 이 서비스가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보도는 여름철 해외 여행이 늘어나는 시기에 응급의료 상담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시의성 있게 전달했습니다. 단순히 서비스를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해외 여행객이 위급 상황에 놓였을 때 초기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또한, 공	실제 상담의 범위나 한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후속 보도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항 이용객이 안내 부스를 이용하고 QR코드를 활용하는 장면을 통해 이 서비스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줬습니다. 더불어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과 실제 이용 사례자의 목소리를 담아 서비스의 실용성 강조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의 범위나 한계에 대한 설명은 부족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함께 전달되길 바랍니다.	
2025 8/10(일)	안지연	무료 체험을 내세운 온라인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뒤늦게 결제 사실을 알게 되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무료라는 문구에 이끌려 참여했지만 세부 조건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까지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피해구제 신청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 5일 보도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 피해 사례를 조명했습니다. 보도는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151건의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되는 등 관련 피해가 매년 늘고 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를 전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정기 결제 자동전환 고지 미흡과 무료기간 이내 해지 제한 또는 방해, 이용요금 부당 청구 등이며, 무료 체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결제 수단을 미리 등록해야 할 경우,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온라인 무료 체험 피해 사례를 다뤘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자동결제 전환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 유형을 소개하고 무료 체험 이벤트 참여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시청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의 권고 내용을 함께 전달해 관련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이 보도는 단신으로 내용을 다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시각적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의 실제 참여 화면이나 페이지 내 유의사항 등을 함께 보여주었다면 시청자들이 상황을 보다 직관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2025 8/17(일)	김홍태	첫 소식은 지난 6일 '뉴스오늘'인데요, 전 세계 흥행 돌풍을 일으킨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영향에 한국 문화를 향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평일 오전 10시도 안 된 이른 아침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다면, 국립중앙박물관 굿즈는 연일 매진에 영화에 나온 서울 명소를 찾는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흥행이 한국 전통문화와 관광지 인기에 미친 긍정적 파급효과를 현장감 있게 전하고 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 오픈런, '룻즈' 품질 현상, 영화 속 명소 방문 사례 등 구체적 장면을 제시하여 시청자의 집중력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영화와 문화상품 그리고 관광지 인기가 장기적으로 한국 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설명하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외의 다른 지역의 모습 그리고 전통문화 상품 제작 과정과 작가 인터뷰 등이 있었다면 내용이 좀 더 풍부해졌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문화 현상이 지속 가능한 경제적 효과를 미칠지와 우리의 문화 보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보충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2025 8/24(일)	임윤주	다음은 '쉬었음' 청년 증가세에 대해 보도한 <뉴스센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직 활동도, 일할 의사도 없는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연평균 10조 원 더 명확한 설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9~2023년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총 53조가 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기간만 15~29세 청년 총인구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쉬었음' 청년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보도는 지난 5년 간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에 주목하여 전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본 보도에서 언급한 '경제적 비용'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연합뉴스TV 홈페이지에서 관련 보도를 검색하여 살펴보면, 본 보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설명과 함께 내용이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설명과 함께 내용이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본 보도에서 언급한 ‘경제적 비용’은 ‘쉬었음’ 청년과 가장 유사한 특성을 지닌 ‘취업’ 청년의 임금 수준을 그들이 잠재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단신 보도이기에 간략하게 전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했으나, 본 보도에서 사용된 일반적인 자료화면 대신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자료화면으로 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달력을 더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 8/31(일)	최미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시험대로 불린 3박 6일 순방이 마무리됐습니다.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서틀외교 재개와 미래산업·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고, 이어진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실용 외교를 앞세운 이번 순방이 한미일 3국 관계를 격상시키는 전환점이 될지, 연합 뉴스TV 보도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5일 한미정상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나타내는 상징적 장면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방일, 방미 현장감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시청자들에게 회담 분위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과 구체적 외교 의제를 통해 회담의 실질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보도 모두 정상들의 발언, 선물, 제스처에 주목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러한 ‘훈훈한 장면’ 중심 보도는 정치적 메시지를 강조하는 데는 효과적이거나, 실제 합의 이행 가능성이나 정책적 난제를 분석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외교가 국내 정치, 동북아 정세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분석적 맥락을 제공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순방 마지막 날 5건의 결산 리포트를 통해 다각적으로 짚어졌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맥락을 짚는 분석 보도 노력 기울이겠습니다.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5. 08. 03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714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가는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일상 속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와 주거 취약계층, 야외 노동자 등 폭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이들은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서울시가 취약계층을 위해 진행 중인 폭염 지원 현장을 조명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숙소를 마련하고 거동이 불편해 반지하에서 폭염을 견디는 고령자에게 찾아가 직접 안부를 살피는 모습을 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생활지원사가 홀로 여름을 나는 할머니에게 안부를 물으며 건강을 체크하는 등 폭염에 대비하는 건강 수칙을 안내하는 장면도 함께 담았습니다. 또한, 29일 뉴스포커스에서는 예초 작업장을 찾아가 야외 근로자들의 고충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날씨가 온종일 더운 탓에 예초 작업자는 돌이 뛰는 것보다 더위가 더 힘들게 느껴지고, 되도록 덥지 않게 안전장비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착용해 작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막 설치, 폭염 대비 물품 구비,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폭염 집중시간대에는 근로자들의 야외 노출 최소화를 위해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고 작업 중 온열질환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119에 신고해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두 보도는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의 일상을 조명했습니다. 기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주거 취약계층, 야외 근로자 등 폭염에 직접 노출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사실감 있게 보여주며,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폭염의 고통을 전했습니다. 두 보도 모두 단순한 제도 소개에 그치지 않고, 폭염 취약계층의 현실을 직접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보도는 폭염이 모두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는데요,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다는 점도 돋보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현장을 비추는 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당황하지 않으려면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달 27일 일요와이드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해외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소방청 응급의료 상담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로 추가하면 몇 번의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얼마 전 멕시코로 향해하던 선박에서 손목 골절상을 입은 선원이 이 서비스를 통해 신속히 초기 치료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례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보도는 해외 시차를 고려해 24시간 전문 요원이 상주해 필요한 응급처치를 안내하고 있다는 소방청 관계자의 설명과 함께 이 서비스가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보도는 여름철 해외 여행이 늘어나는 시기에 응급의료 상담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시의성 있게 전달했습니다. 단순히 서비스를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해외 여행객이 위급 상황에 놓였을 때 초기 대응 방

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또한, 공항 이용객이 안내 부스를 이용하고 QR코드를 활용하는 장면을 통해 이 서비스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줬습니다. 더불어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과 실제 이용 사례자의 목소리를 담아 서비스의 실용성 강조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의 범위나 한계에 대한 설명은 부족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함께 전달되길 바랍니다. 대형 참사 이후, 피해자와 유족을 향한 2차 가해가 반복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조롱과 비난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이 본격적으로 마련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뉴스위치의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경찰이 이태원 참사 등 주요 참사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가해 범죄 수사팀 신설하는 것을 조명했습니다. 보도에서는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내에 2차가해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사팀을 마련하며 총경급을 팀장으로 19명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팀은 참사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 직접 수사 및 2차 가해 근절을 위한 정책 기획과 법령 연구,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내 2차가해 범죄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사이버예방 교육 실시와 온라인상 2차 가해 게시글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하는 등 가회적 경각심 제고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는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도는 피해자 중심의 법 집행과 경찰 활동은 2차 가해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장점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대형 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향한 2차 가해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에 주목했습니다. 경찰청이 신설한 전담 수사팀의 규모와 구성,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제도 도입의 배경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특히 2차 가해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반복되는 사회적 문제로 조명했는데, 제도적 대응이 피해자 보호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사회적 경각심을 유발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민 의견이나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았다면 제도 도입의 취지를 보다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더욱 넓힐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의 흡연율이 증가하면서 일반 담배보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소년의 흡연 행태 변화에 따라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청소년들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 증가와 흡연 행태의 변화에 대해 다뤘습니다. 보도는 질병관리청 발표를 인용해 여고생의 액상 전자담배 사용률은 1.54%로 일반담배 사용률 1.33%를 앞질렀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쉽게 접할 수 있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도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들의 금연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고 청소년 음주 경험률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를 막기 위한 규제와 정책 대응이 시급해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청소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한 의대 교수의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 실태에 주목해 관련 문제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와 함께, 합성 니코틴 제품이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드러냈

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를 막기 위한 규제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 보도의 설득력을 높였고, 사회적 경각심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흡연 문제는 다양한 배경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통계 중심의 접근을 넘어 보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보다 구체적인 시각이 더해졌다면 보도의 깊이를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5. 08. 10.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15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예식 서비스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이후 단기간 내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을 이유로 계약금조차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난 3일 뉴스오늘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곧 결혼을 앞둔 A씨의 사례를 통해 예식 서비스 관련 소비자의 피해를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계약 후 7일 이내 취소 시 계약금의 10%를 제외하고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나흘 뒤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위약금 조항이 우선 적용된다고 오히려 더 큰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살펴보면, 소비자는 예식장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권고일 뿐 법적 강제력이 없어 예식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는 지적했습니다. 보도에서 공정위 관계자는 분쟁을 피하려면 예식업체의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A씨에게 계약 당시 위약금 관련 조항이 계약금 환급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고지해, 위약금 청구의 정당성을 주장한다고 보도는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예식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사례를 전달했습니다. 피해자 인터뷰와 예식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통해 예식 산업의 불투명한 계약 관행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과 표준약관 제도를 소개했는데, 공정위의 기준이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언급만으로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표준약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원인이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제재 등은 다루지 않아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한 사례도 덧붙였다면 문제의식을 더욱 강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원이 직접 분쟁 조정애 나섰던 사례나 법적 판결 사례 등을 함께 다뤘다면 단순한 사례 소개를 넘어 제도의 이해와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아우르는 깊이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스톡킹과 교제폭력 등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며 관계성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도적 대응의 실효성과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인데,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자 각계에서는 이에 대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발생한 의정부 사건은 범행 전 세 번의 스톡킹 신고가 있었으나 참극을 막지 못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단 6일 만에 전국 각지에서 여성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을 예고했고 대검찰청도 잠정조치 처리 개선을 지시했다고 보도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에는 스톡킹 관련 개정안이 무려 19건이 계류 중이며 여당은 8월 국회에서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보도는 쏟아지는 대책이 반짝 대응에 그치지 않으려면 현행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완전히 분리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는 스톡킹, 교제폭력 관련 강력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의정부 사건을 비롯해 전국에서 발생한 유사 범죄들을 함께 다뤄 반복되는 비극의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단 6일 동안 관련 범죄로 희생된 피해자들의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사안의 중대성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한편, 관련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설명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그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는 구조적 한계를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데 머물렀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관계성 범죄에 대한 문제 제기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여러 차례 다뤄졌던 만큼, 이와 관련된 보다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이 더해졌다면 보도의 설득력을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료 체험을 내세운 온라인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뒤늦게 결제 사실을 알게 되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무료라는 문구에 이끌려 참여했지만 세부 조건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까지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피해구제 신청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 5일 보도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 피해 사례를 조망했습니다. 보도는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151건의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되는 등 관련 피해가 매년 늘고 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를 전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정기 결제 자동전환 고지 미흡과 무료기간 이내 해지 제한 또는 방해, 이용요금 부당 청구 등이며, 무료 체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결제 수단을 미리 등록해야 할 경우,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온라인 무료 체험 피해 사례를 다뤘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자동 결제 전환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 유형을 소개하고 무료 체험 이벤트 참여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시청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의 권고 내용을 함께 전달해 관련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이 보도는 단신으로 내용을 다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시각적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의 실제 참여 화면이나 페이지 내 유의사항 등을 함께 보여주었다면 시청자들이 상황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에너지 공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중대 재해 발생 공기업에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혔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산업부는 에너지 공기업 산하 작업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잇따르자 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예산과 안전인력 투입과 위험현장에 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등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대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안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어진 관련 보도에서는 정부가 내년까지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관을 총 1,300명 가량 증원하

는 작업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기획재정부는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검토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보도는 근로감독관 300명 증원을 수시 직제에 반영하는 개정안도 이달 중 처리될 예정인 것으로 전했습니다. 두 보도는 정부의 산업안전 문제 대응 방안을 다뤘습니다. 에너지 공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계기로 산업부와 고용부의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 배경과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전달했는데요, 관련 문제가 꾸준히 보도되는 가운데 이번 보도는 각 부처의 핵심 조치를 정리해 산업안전 정책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부의 강력한 제재 방침과 고용부의 인력 보강 계획을 전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문제가 개별 사업장의 책임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공의 문제임을 인식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 관련 보도에서 다뤘던 현장 사례나 노동계의 반응 등을 덧붙였다면 보도의 깊이가 더해졌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5. 08. 17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716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홍태입니다. 첫 소식은 지난 6일 '뉴스 오늘'인데요, 전 세계 흥행 돌풍을 일으킨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영향에 한국 문화를 향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평일 오전 10시도 안 된 이른 아침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다면서, 국립중앙박물관 근처는 연일 매진에 영화에 나온 서울 명소를 찾는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시간에 맞춰 '오픈런'에 나선 이들로 입구 앞이 빼곡한데요,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에 힘입어 기획 상품 '뭇즈' 인기가 커진 영향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관람객은 69만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2배가량 대폭 늘었다는데요, 서울 강남구 거주하는 이원영씨는 곤룡포가 들어왔다고 해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자마자 도착해서 1등으로 왔다면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인기 때문에 그런지 올해 사람이 매우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영화 속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까지 호랑이 배지는 진작에 동났고, 곤룡포와 갓 등 한국 전통문화가 녹아든 상품들 반응도 뜨겁다는데요, 튀르키예에서 온 메르베 세나씨는 인기가 많은 건 온라인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늦게 온 것도 아닌데 품절된 게 많이라며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영화에 나온 서울 명소를 찾는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어, 주인공 루미와 진우가 만나는 낙산공원 성곽길을 따라 걷다 보면 외국인 관광객 모습이 보인다는데요, 스페인에서 온 아이다·라이아씨는 서울에 이런 곳이 있는 건 알고 있어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이곳이 나와 오게 됐다고 합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높아진 K-컬처 관심에 불을 지핀 셈인데요, '케데헌' 돌풍이 의미있는 건 각광받고 있는 문화상품이나 관광지들이 모두 한국 고유의 멋을 담았다는 점이라면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을 '케데헌' 이 또 한번 증명해 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흥행이 한국 전통문화와 관광지 인기에 미친 긍정적 파급효과를 현장감 있게 전하고 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 오픈런, '뭇즈' 품절 현상, 영화 속 명소 방문 사례 등 구체적 장면을 제시하여 시청자의 집중력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영화와 문화상품 그리고 관광지 인기가 장기적으로 한국 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설명하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외의

다른 지역의 모습 그리고 전통문화 상품 제작 과정과 작가 인터뷰 등이 있었다면 내용이 좀 더 풍부해졌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문화 현상이 지속 가능한 경제적 효과를 미칠지와 우리의 문화 보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보충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지난 7일 '뉴스워치'에서는 정부 부처들의 정책 홍보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댄스 챌린지 등 젊은 층이 주목하는 K-콘텐츠를 활용한 SNS 홍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소다팝' 영상을 소개하면서,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인천에서 열린 APEC 식량 회의를 홍보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이 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아이돌 멤버 에비를 똑같이 흉내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핑크색 머리에 노란 비니, 스타일부터 춤까지 과감한 모습으로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홍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은 쉽고 재밌게 접근하기 위해서 트렌디한 밈을 활용했다면서, 국민에게 농업농촌 정책을 쉽고 재밌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K-콘텐츠를 활용하여 그룹 블랙핑크의 노래 '뚜두뚜두'와 악어 밈을 활용해 제철 농산물 '두릅'을 홍보한 영상도 있었는데, 유쾌한 반응을 이끌어냈고, 전 부처 중 유튜브 구독자수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정책 메시지가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참여와 공감으로 바뀌고 있는건데요,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가 재밌어할 만한 구성이나 연출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면 많이 클릭하고 재밌어해서, 정책 홍보 효과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딱딱하게 여겨졌던 정부 정책 홍보 방식이 인기 K-콘텐츠와 결합되면서 젊은 세대와의 접점이 넓어지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정부 부처들이 K-콘텐츠와 SNS 트렌드를 활용해 정책 홍보 방식을 혁신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케이팝 데몬 헌터스' 캐릭터 패러디나 블랙핑크 '뚜두뚜두' 밈 등을 활용한 농식품부의 홍보 영상을 소개하며, 기존 딱딱한 정책 홍보의 한계를 넘어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변화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영상 속 유머와 트렌드함에 더해 정책의 중요성과 구체적 혜택을 알기 쉽게 녹여내고, 다양한 계층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자들이 재미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영상 속 정책이 일상과 사회에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게 하고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멘트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9일 '생생네트워크'에서는 공공기관에 물품을 공급하는 조달청이 AI제품 시범구매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면서, 정부의 제품 구매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AI혁신제품 발굴을 위한 지원안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고 CCTV관제센터 밖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면서, 사무실을 비추는 CCTV 화면 속 인물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가려지며 인물들이 자리를 옮기거나 크게 움직여도 얼굴이 실시간으로 알아 볼수 없게 변한다고 합니다. 최동걸 엔트랩 대표는 AI를 활용해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지울 수 있다며, 이런 귀중한 CCTV 영상 정보들이 외부로 나가 적체적소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현재 대전역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조달청은 이 과정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조달청은 자체 예산으로 혁신제품을 시범 구매한 뒤 공공기관과 기업을 연결해 수요를 끌어내고 필요한 규격 검토 등을 돕고 있는데요, 박상혁 조달청 신성장조달총괄과 주무관은 기업들이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조달청의 예산으로 직접 시범 구매를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시범 구매 예산을 지난해 483억 원에서 올해 530억 원으로 늘리는 등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구매를 대폭 강화해 AI시장을 활성화

하기로 했는데요, 혁신제품 가운데 AI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별도 기준을 세우고, 또 AI혁신제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실증 지원 기업을 올해 60개에서 내년 90개로 늘렸다고 전했습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AI와 같은 핵심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미처 검증되지 않았더라도 정부가 위험을 안고 과감하게 구매하여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조달청은 AI전문기관을 혁신제품 발굴에 활용하고 AI제품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시장 저변 확대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조달청이 AI혁신제품 시범 구매를 확대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설명하면서, 그 실제 사례로 CCTV에서 얼굴을 비식별 처리하는 기술을 보여줘 시청자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한 점이 매우 돋보입니다. 특히 초기 판로 확보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있어 정부의 유용한 역할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의 AI 시장 개척이 가져올 영향에 대하여 기술적인 발전 외에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에 대한 윤리 의식을 간단히 언급하면 좋았을 것입니다. 지난 9일 '와이드 17'에서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2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가 130.1포인트로 전월보다 1.6% 상승했다고 지난 9일 밝혔는데요, 육류 가격지수는 전월보다 1.2% 오른 126.3포인트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유제품도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고 하면서, 다만 곡물 가격지수는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유제품과 설탕 가격지수도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곡물, 식물성 기름, 유제품, 육류, 설탕 5개 상품군의 국제거래 가격을 종합해 매달 발표하는 지수인데요, 세계 식량 시장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는 세계식량가격지수의 변화와 세부 항목별 상승·하락 현황을 간결하게 전달해 시청자들이 전반적인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세계식량가격지수의 간단한 개념과 이 지수가 의미하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라도 설명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가격 변동의 원인과 국내 물가·식품 시장에 미칠 영향, 특히 생활 물가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에 대하여 시청자가 체감할 수 있게 언급하였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지난 11일 '뉴스1번지'에서는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지난 7월 0.4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7월 한달 구인 인원과 실제 구직 인원을 비교해 보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고용 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를 이용한 지난 7월 신규 구인 인원은 16만5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만4천명 감소했으나, 고용24를 이용한 신규 구직 인원은 지난달 41만1천명으로 2만1천명 늘었다고 합니다. 구인 배수는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데요, 0.40으로 나타났고 이는 7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고용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제조업 경기가 많이 부진한 게 원인이라면서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 숫자가 줄고 있고, 제조업의 구인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구인 배수'라는 지표를 통해 현재 노동시장 상황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7월 기준 1999년 이후 최저치라는 비교 수치를 제시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에 대하여 제조업 경기 부진이 원인이라는 다소 간략한 설명에 그쳐, 서비스업·IT·공공 부문 등 다른 산업의 구인·구직 동향을 좀 더 설명하고, 지역이나 연령에 따른 차이도 함께 설명했다면 유익했을 것입니다. 함께 현 상황에서 국가도 국민도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마지막 멘트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5. 08. 24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17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임윤주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일명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경제계와 노동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합뉴스TV에서는 양측 의견을 전했는데요, 먼저 경제계 의견을 전한 <뉴스리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계가 국회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협력업체 노조의 원천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만은 제외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국회가 노동계 요구만을 반영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 통과 시 국내 산업 생태계는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제차 강조하며, 경제계가 제시한 수정안을 수용할 것을 국회에 거듭 호소했습니다. 본 보도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경제계의 반발 의견을 전했습니다. 개정안 가운데 경제계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전했는데요, 보도에서 언급한대로 경제계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보도에서 인용을 통해 전하기는 했으나, 수정안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했다면, 현재 경제계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더 잘 전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동계의 반응을 전한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청년단체들이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청년진보당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은 청년 노동자들이 나쁜 일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 보도는 앞서 살펴본 보도와 함께 이어진 보도로서, 노동계와 청년단체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두 보도를 통해 양측의 반응을 살펴보면, 경제계는 수정안 수용 요구를, 노동계는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경제계 의견 보도와 마찬가지로, 본 보도 역시 노동계와 청년단체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개정안의 내용과 함께 보도하였다면 전달력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노란봉투법은 현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까지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만큼 연합뉴스TV에서도 다양한 보도를 통해 양측의 의견을 잘 전해왔기 때문에, 그간의 보도를 통해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보도와 같이 단신 보도에서도 양측이 전하고자 하는 주요한 내용 및 쟁점이 보다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쉬었음’ 청년 증가세에 대해 보도한 <뉴스센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직 활동도, 일할 의사도 없는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연평균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9~2023년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총 53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기간 만 15~29세 청년 총인구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쉬었음’ 청년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보도는 지난 5년 간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에 주목하여 전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본 보도에서 언급한 ‘경제적 비용’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연합뉴스TV 홈페이지에서 관련 보도를

검색하여 살펴보면, 본 보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본 보도에서 언급한 ‘경제적 비용’은 ‘쉬었음’ 청년과 가장 유사한 특성을 지닌 ‘취업’ 청년의 임금 수준을 그들이 잠재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단신 보도이기에 간략하게 전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했으나, 본 보도에서 사용된 일반적인 자료화면 대신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자료화면으로 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달력을 더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비만치료제에 관해 보도한 <와이드17>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2,363억원으로, 전년보다 30% 넘게 커졌습니다. 앞으로도 비만치료제의 인기는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더 싸게, 더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볼 기회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량별 차등 가격 적용 등은 물론 국내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주사 투약의 고통을 덜어주는 패치형·마이크로 니들 등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오남용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위고비는 보건당국 결정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처방을 금지했고, 한국의학바이오키자협회와 대한비만학회는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만 처방해야 하고, 처방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오남용시 메스꺼움, 구토, 췌장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비보험 처방에 따라, 오남용 통계도 잘 드러나지 않는 상황으로,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 미용보조제 정도로 생각해선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본 보도는 현재 비만치료제 현황을 잘 정리하여 전하며 시장의 증가세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한 한편, 부작용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인용을 통해 전하며 경각심을 갖게 한 보도였습니다. 비만치료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비대면 진료 시에는 처방이 제한된다는 점을 최근까지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지난 7월에 정책 브리핑을 통해 비만 환자 치료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제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본 보도 역시 해당 부분들이 잘 녹여져 있었고, 특히 비만치료제 오남용 및 부작용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하다고 언급한 부분은, 시청자가 한 번에 와닿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주의를 끄는 동시에, 관련 부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태극기에 대해 보도한 <와이드08> 살펴보겠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 걸린 ‘남상락 자수 태극기’는 물을 상징하는 감괘와, 불을 뜻하는 이괘의 위치가 우리가 아는 태극기와 다르게 뒤바뀌어 있습니다. 일장기 위에 덧칠해 항일 의지를 다졌던 ‘진관사 태극기’ 역시 감괘와 이괘의 위치가 다르고, 태극 문양도 세로 방향입니다. 이렇게 태극기 모양이 제각각이었던 이유는 19세기 말, 혼돈의 역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도원 대한민국의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는 태극기가 “1883년 국기로 지정은 되었지만 그 형태에 대해서는 공식으로 지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하며, 때문에 “4개의 괘와 태극 문양은 자유롭게 활용”됐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리 만국박람회에 걸렸던 태극기, 3·1운동 이후 장독대 밑에 숨겨 지켜낸 동덕여자의숙 태극기, 상해에 나부꼈던 임시 의정원 태극기 등 근대화를 이루고자 했던 고종 황제를 시작으로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자주와 독립을 바랐던 이들은 모두 자신만의 태극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도원 연구사는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기의 형태에 대해서 한차례 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됐지만 시대 상황 속에서 온 국민에게 전해지지는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의 태극기 모양이 자리 잡은 건 1949년 국기제작법이 만들어지고 난 후로, 담겨있는 뜻은 ‘조화’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는 다양

한 모양의 태극기가 걸렸습니다. 광복절 당일 경축식에서도 다양한 태극기가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본 보도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에 집중하여 보도했는데요, 여러 자료 화면을 통해 각기 다른 형태의 태극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그 모양에 담긴 시대적 배경과 의미에 대해 전해 더 뜻깊은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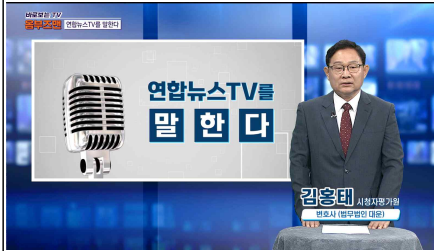
● **최미연 시청자평가원(25. 08. 31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18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최미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시험대로 불린 3박 6일 순방이 마무리됐습니다.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서틀외교 재개와 미래산업·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고, 이어진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실용 외교를 앞세운 이번 순방이 한미일 3국 관계를 격상시키는 전환점이 될지,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5일 한미정상회담이 화기에 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피스 메이커’ 역할을 요청했고, 자신은 ‘페이스 메이커’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화답하며, 중국 방문과 관련해 농담을 던져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비공개 오찬에서도 두 정상은 암살 위협 경험 등 개인적 공통점을 공유하며 신뢰를 쌓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 만남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반도에서 핵 확산 금지조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며, 한국도 비핵화 공약을 지키는 동시에 북한과 대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를 만나 서틀외교 재개와 양국 협력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수소 에너지·AI 등 미래산업 협력, 저출산·고령화 등 공동 사회문제 대응, 위킹홀리데이 확대를 통한 인적 교류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회담은 예정 시간을 50분 넘겨 진행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제일동포 오찬에서 과거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정상회담 뒤 두 정상은 만찬과 친교 행사도 이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나타내는 상징적 장면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방일, 방미 현장감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시청자들에게 회담 분위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과 구체적 외교 의제를 통해 회담의 실질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보도 모두 정상들의 발언, 선물, 제스처에 주목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러한 ‘훈훈한 장면’ 중심 보도는 정치적 메시지를 강조하는 데는 효과적이거나, 실제 합의 이행 가능성이나 정책적 난제를 분석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외교가 국내 정치, 동북아 정세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분석적 맥락을 제공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진술거부와 재소환을 거듭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 권성동 의원 등 관련자들을 불러 혐의를 밝히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보

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특검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권성동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고, 김건희씨는 29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특검은 당원 명부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지만 당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지난 25일 특검은 김건희 씨를 소환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인사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전 씨가 ‘건희2’ 번호와 주고받은 문자에서 특정 인사를 추천했고, 이에 ‘이력서를 보내 달라’는 답장이 확인되자 김 씨가 직접 개입했는지를 추궁했습니다. 김 씨 측은 해당 번호가 정모 전 행정관의 업무용이었다고 반박했지만, 특검은 김 씨가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원 의혹과 통일교 인사 비례대표 추천 의혹도 조사했으나, 김 씨는 끝까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의 권성동의원과 김건희 씨 관련 보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재소환 통보, 구속 기한 등 사법 절차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사건 진행 경과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몇 달째 이어지는 수사와 관련된 인물들을 단순히 피의자 개인 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윤 전 대통령까지 재판에 넘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치적 확산성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김건희 진술 거부-특검 구속 기소 방침”이라는 반복적 프레임에 갇혀, 독자들에게는 사건의 맥락보다는 절차만 부각된 인상을 줍니다. 즉, 사건 전달 보도로서는 적절하지만, 언론 본연의 탐사·분석 기능을 통해 시청자가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적 보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산업재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도 열차사고와 SPC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 쿠광 및 포스코 근로자 사망사고 등 크고 작은 산재가 이어져 이에 대한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사건 사고 보도가 아닌, 산재 예방을 위한 우리 사회의 제도적, 기술적 차원에서 대안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 작업을 하던 40대 작업자가 소나기에 휩쓸려 맨홀에 빠졌습니다. 작업자는 5인 1조로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며, 소방당국이 수색한 끝에 빗물펌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올해 들어 맨홀 작업 중 숨진 노동자는 이미 6명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응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모든 산재 사망 사고를 즉시 보고받겠다고 밝히며, 기업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을 소홀히 하는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강력한 과징금과 처벌을 핵심으로 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추진 중입니다. 인명사고 발생 시 기업에 최대 매출액 3% 과징금, 관계자에 최대 7년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처벌만으로는 산재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는 안전 책임 관리자의 부재와 잇따른 산재에 대한 정부의 대안 등을 담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제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고 발생과 사망자 발생으로 보도하지 않고, 올해 들어 증가한 맨홀 사고와 가스측정기 의무화 같은 정부의 대책을 제시한 점도 주목할만합니다. 또한 산재 예방에 대한 정부의 대안적 모델로 싱가포르의 사례를 상세하게 보도하고, 한국의 상황에 따른 적용 가능성 등을 모색한 점도 인상 깊습니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는 맨홀 사고에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마치 사고의 주 원인인 것처럼 제시되었는데, 이는 작업 중단 결정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거나 안전 매뉴얼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보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고의 구조적 원인·책임 소재·노동자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는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이어, '더 센 상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의 대치가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노동권 보장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성과로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 확대와 직접 교섭권 보장을 핵심으로 합니다. 또한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고, 과업 사유 범위를 넓혔으며, 노조·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노동계는 환영했지만 경영계는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법은 6개월 뒤 시행됩니다. 지난 25일 연합뉴스TV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센 상법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법'이라며 헌법 소원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안 추진 속도조절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강행 시 9월 국회 보이콧을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의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보도는 쟁점 법안의 핵심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시청자가 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 보도에서는 원하청 교섭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손해배상 범위 제한 등 변화를 구체적으로 짚었고, 더 센 상법 보도에서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라는 제도적 의미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또한 노동계와 경영계, 여당과 야당의 상반된 반응을 균형 있게 제시해 사회적 쟁점을 다각적으로 보여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의미보다 여야 갈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작 법안 적용 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부족한 점은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일시/장면설명 2025년 8월 3일 04시/ 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일시/장면설명 2025년 8월 10일 04시/ 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일시/장면설명 2025년 8월 17일 04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일시/장면설명 2025년 8월 24일 04시/ 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일시/장면설명 2025년 8월 31일 04시/ 최미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